

기획세션 1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인공지능 대세론 뒤의
거짓 신화

-고아침(AI 윤리 레터)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되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고아침 achim.koh@gmail.com

<[AI 윤리 레터](#)> 운영진

빠띠 공익데이터팀 활동가



앤드류 응 "AI는 이 시대에 등장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기회"

“AI는 ‘일자리 재앙’ 아닌 ‘두 번째 산업혁명’”

WSJ, “마르크스는 틀렸다. 기술은 언제나 더 많은 부를 만들었다”

<배수연의 전망대> 데이터가 '4차산업혁명의 석유'다

美 엔비디아 젠슨 황 "AI GPU, 석유 대체...새로운 전략자원"

이 대통령 “AI는 거대한 수레...피할 수 없다면 빨리 대비해야”

수정 2026.01.29 20:43 ▾

정환보 기자



요약

수석보좌관회의서 현대차 노조 ‘로봇 반대’ 들어 적극 대응 강조
설탕세 논의 비판 겨냥해선 “상대 주장 왜곡하면 토론이 안 된다”



“주산학원 없어졌듯...”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발언을 하다 주판을 쓰던 시절을 언급하며 암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AI는 거대한 수레...피할 수 없다면 빨리 대비해야”

수정 2026.01.29 20:43 ▾

정환보 기자



수석보좌관회의서 현대차 노조 ‘로봇 반대’ 들어 적극 대응 강조

설탕세 논의 비판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의 중심이 될 것”



“주산학원 없어졌듯...”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발언을 하다 주판을 쓰던 시절을 언급하며 암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AI는 거대한 수레...피할 수 없다면 빨리 대비해야”

수정 2026.01.29 20:43 ▾

정환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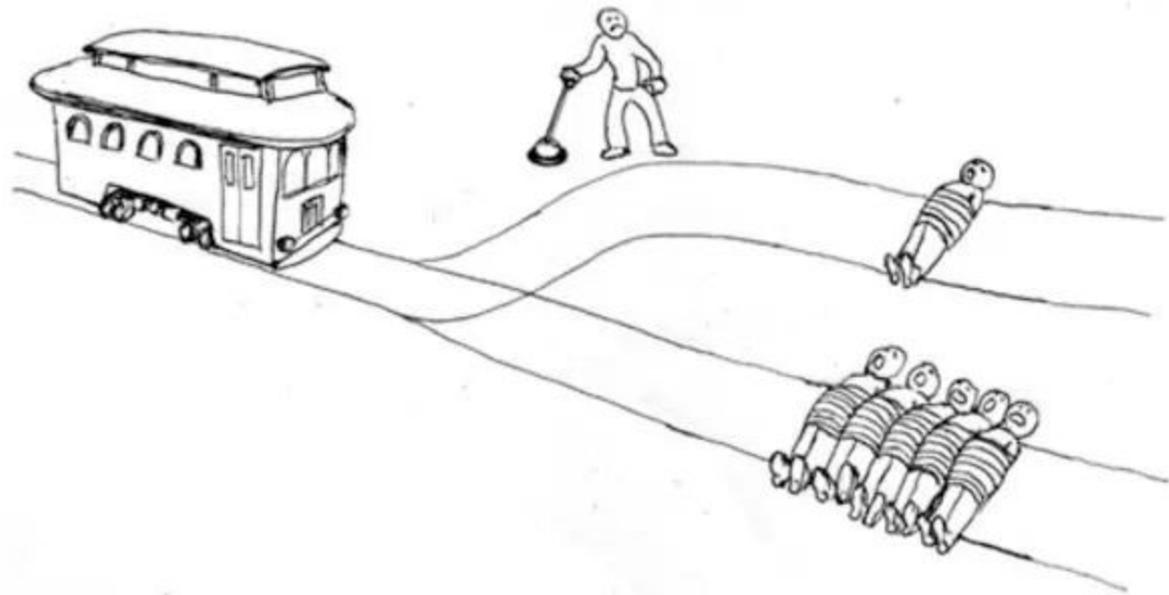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서 현대차 노조 ‘로봇 반대’ 들어 적극 대응 강조
설탕세 논의 비판 겨냥해선 “상대 주장 왜곡하면 토론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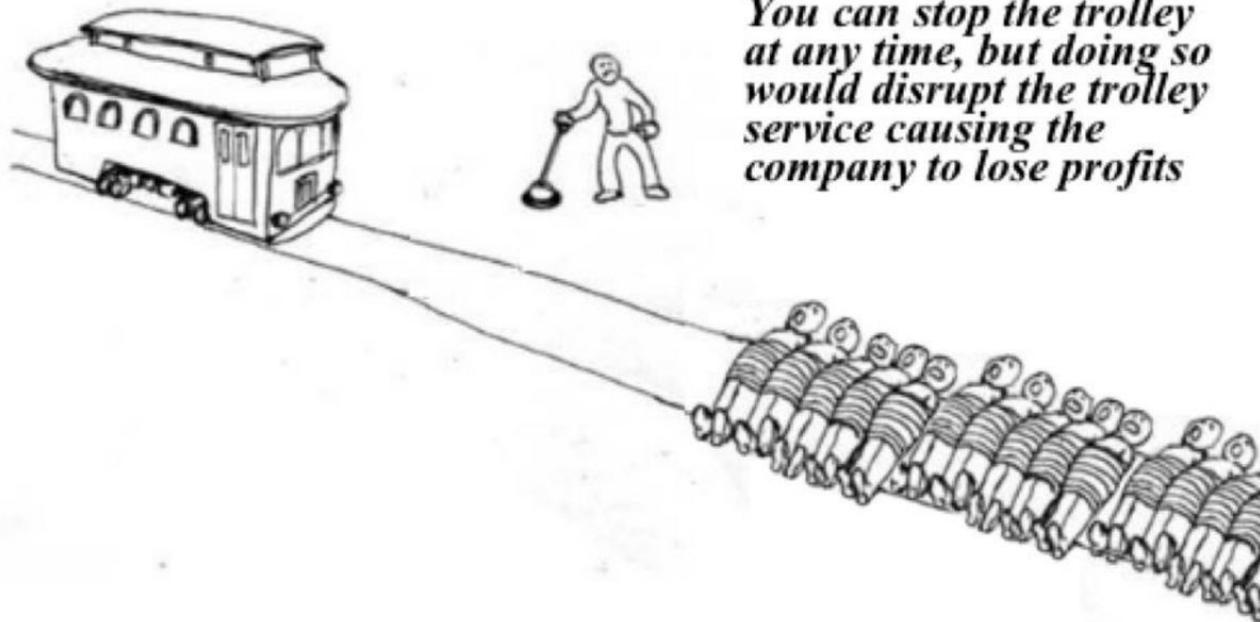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



“주산학원 없어졌듯...”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발언을 하다 주판을 쓰던 시절을 언급하며 암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언제든 광차를 멈출 수 있지만, 그러면 광차 운영에 차질이 생겨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AGI 인공일반지능
Superintelligence 초지능

손정의 회장 "10년 안에 AGI 등장할 것... AI 거부하면 금붕어·원숭이 수준 될 것"

박찬 기자 | 승인 2023.10.05 18:31



“경제적 가치 있는 대부분의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고도로 자율화된 시스템”

OpenAI’s mission is to ensure that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by which we mean highly autonomous systems that outperform humans at most economically valuable work—benefits all of humanity. We will attempt to directly build safe and beneficial AGI, but will also consider our mission fulfilled if our work aids others to achieve this outcome. To that end, we commit to the following principles:

경제 · IT/과학

MS·오픈AI가 정의하는 AGI는... "1000억 달러 수익 내는 AI"

입력 2024.12.27 14:33 ▾

"암·죽음도 해결할 AGI 시대, 절대 유토피아는 아닐거다" [창간 60주년 인터뷰]

중앙일보 | 입력 2025.09.25 05:00 업데이트 2025.09.26 10:18

지면보기 ⓘ

에릭 슈미트 "어차피 기후목표 도달 못해...AI 인프라 투자해야"

| 슈미트 전 구글 CEO "AI 성장이 친환경적 예방 조치 앞지를 것"

인터넷 | 입력 :2024/10/07 11:51

Electronic 'Brain' Teaches Itself

전자 '뇌', 스스로 가르친다

The Navy last week demonstrated the embryo of an electronic computer which, in a year, is non-living mechanism able to perceive, recognize and identify its surroundings without human training or control. Navy officers demonstrating a pre-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almost the way a child learns. When fully developed, the Perceptron will be designed to remember images and information it has perceived itself, whereas ordinary computers remember only what is fed into them on punch cards or

“퍼셉트론은 무작위로 배치된 사각형이 화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100번 중 97번이나 정확하게 '말했다'.”

can it a machine because it is so human being without Rosenblatt, research psychologist at the Cornell Aeronautical Laboratory, Inc., Buffalo,

said, will be able to recognize people and call out their names. Printed pages, longhand letters and even speech commands are within its reach. Only one more step of development, a difficult step, he said, is

“퍼셉트론을 시연한 해군 장교들은 그것이 너무나 (생명만 없는) "인간" 같아서 '기계'라 부르기 주저했다.”

machine, he said, would be the first electronic device to think as the human brain. Like humans, Perceptron will make mistakes at first, "but it will grow wiser as it gains experience," he said.

translate it to speech or writing in another language.

(뉴욕타임즈 1958)

The first Perceptron, to cost about \$100,000, will have about 1,000 electronic "association cells" receiving electrical impulses from an eyelike scanning device with 400 photocells. The human brain has ten billion responsive cells, including 100,000,000 connections with the eye.

Self-Reproduction
In principle, Dr. Rosenblatt said, it would be possible to build Perceptrons that could reproduce themselves on an assembly line and which would be "conscious" of their existence.

Difference Recognized

The concept of the Perceptron was demonstrated on the Weather Bureau's \$2,000,000 IBM 704 computer. In one experiment, the 704 computer was shown 100 squares situated at random either on the left or the right side of a field. In 100 trials, it was able to "say" correctly ninety-seven times whether a square was situated on the right or left. Dr. Rosenblatt said that after having seen only thirty to forty squares the device had learned to

Perceptron, it was pointed out, needs no "priming."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it to surroundings and circumstances, record the data involved and then store them for future comparison as is the case with present "mechanical brains." It literally teaches itself to recognize objects the first time it encounters them. It uses a camera-eye lens to scan objects or survey situations, and an electrical impulse system, patterned point-by-point after the human brain does the interpreting. The Navy said it would use the principle to build the first Perceptron "thinking machines" that will be able to read or write.

as I have argued earlier, machines will be capable, within twenty years, of doing any work that a man can do. Economically, men will retain their greatest comparative ad-

이십 년 내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parts (기계가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some forms machinery

(e.g., operating (허버트 사이먼 1965) some kinds of

nonprogrammed problem solving, and some kinds of service activities where face-to-face human interaction is of the essence. Man will be somewhat less involved in performing the day-to-day work of the organization, and somewhat more involved in maintaining the system that performs the work.²⁶

‘생산성’

AI 생산성에 대한 믿음 (AGI 신화와 밀접)

‘AI 기술이 막대한 생산성 증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며, 이는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한다’

- AI는 생산성을 향상하는가, 아니면 노동을 전가(비가시화/노동조건 악화)하는가?
- AI로 생산성이 늘어나도 이익은 기업에 돌아가며, 분배를 기대할 근거는 없다.

선형적 기술관

선형적 기술관: 단일한 기술로서의 AI

현재 AI 기술로 다음 단어나 바둑의 수 예측을 잘 할 수 있다

→ AI로 사회 문제 대응, 과학 연구, 기후 위기 해결도 가능하다(?)

선형적 기술관: 스케일 중심주의

AI 스케일링 원칙 (많은 데이터 + 많은 연산 → 성능 향상)

→ 인프라 점유를 통한 시장 경쟁과 밀집

AGI 신화 + 선형적 기술관

미래의 AGI를 달성하는 데 사회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에릭 슈미트 "어차피 기후목표 도달 못해...AI 인프라 투자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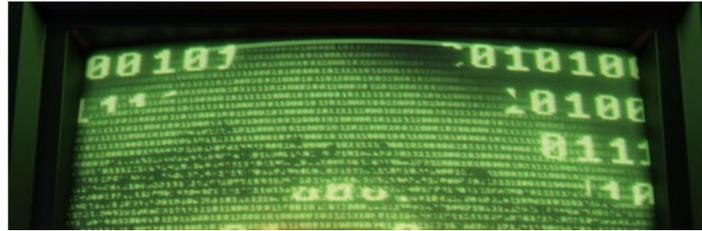
| 슈미트 전 구글 CEO "AI 성장이 친환경적 예방 조치 앞지를 것"

인터넷 | 입력 :2024/10/07 11:51

AI 국가주의

Our Oppenheimer Moment: The Creation of A.I. Weapons

July 25, 2023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군비 경쟁이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



Andreas Emil Lund



기술 패권주의, AI 군비 경쟁

경제적·군사적 안보 ← 기술력 확보

산업 = 안보 자산. 산업-안보 동일시 (지정학 중심주의)

미-중 AI 군비 경쟁

소버린 AI: 자체적 기술 역량을 확보 → 기술 안보

"소버린 AI 없으면 글로벌 기업에 종속... 될성부른 기업 집중 지원"

하정우 AI수석의 '소버린 AI' 생태계 구상

변희원 기자

업데이트 2025.06.17. 10:13 ▾

🔊 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AI 수석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뉴스1

대한민국 AI고속도로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탈규제론과 AI 국가주의

업계의 이익 = 국익

→ 업계에 책임을 부여하는 규제(데이터 보호, 반독점 등)는 '국익에 반하는' 것

혁신 VS 규제 이분법 → 정책적 개입은 산업 진흥을 위해서만 정당화

불가피성의 신화



32

박찬욱 감독

어쩔 수가 없다

이병헌 손혜진 박희순 이상민 임제환 차승원

25.09.24

‘AI 대세론’의 구성요소

AGI 신화, 기술 만능주의

선형적 기술관

AI 국가주의



AI 성능은 전부 과장돼 있다?

현재 AI 경로는 답이 없다?

지정학은 중요하지 않다?

AI 기술은 강력한 효과와 잠재력을 가짐

데이터·연산 투입(스케일) 중심 AI도 (특히 빅테크 중심 구도에서) 유효함

지정학에 입각한 각국의 의사결정이 우리 삶과 AI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하지만...

‘AI 대세론’은 이념

AI는 기술사회적 ‘현실’인 동시에 이념·신념체계

AI의 사회적 도입을 매개로 기업·국가에 권력 집중, 반면 대다수의 삶은 취약해질
위험

→ 기술의 ‘필연성’을 전제하는 세계관을 거부해야 할 필요성

변모하는 AI 하이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에이전틱 AI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동화 / 인간 배제)
- 피지컬 AI (물리적 공간에서의 자동화 / 인간 배제)

A cutout of Margaret Thatcher, dressed in a purple suit, stands with her arms crossed. A speech bubble next to her contains the text "THERE IS NO ALTERNATIVE".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은 없다” (마거릿 대처)

다를 수 있다

(It could be otherwise)

해방의 정치는 언제나 ‘자연적 질서’의 외양을
파괴해야 하며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제시되는
것이

그저 우연적일 뿐임을 폭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성취 가능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 마크 피셔, <자본주의 리얼리즘>